피사 사탑의 기울어진 5m

(예레미야 34장 1~22)

12.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14.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칠 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육 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5.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16.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17.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오늘 말씀 중심으로 <피사 사탑의 기울어진 5m>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피사 사탑의 기울어진 5m'
2019년 1월 1일을 맞아서 살펴보게 될 예레미야 34장에 담겨있는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의 내용은 마치 피사 사탑의 기울어진 5미터를 연상하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을 피사의 사탑처럼 5미터 기울어진 상태로 살아갈 때에 복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탑은 땅과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탑뿐만이 아닙니다. 건축가들이 건물을 세울 때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중심이 땅과 수직이 되게 하는 것입니

다. 설령 탑의 형태가 전후좌우로 들쭉날쭉하더라도 수직선을 중심으로 무게가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피사의 사탑은 수직선을 기준으로 최대 5.4미터나 기울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1990년도부터 2001년까지 4,000만 불을 들여서 전 세계의 전문가 14명이 10년 동안 보수공사를 진행했는데,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던 1996년에 5.4미터나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보수공사로 인해 45센티를 복구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로 지금까지 18년이 지나면서 추가적으로 4센티가 자연적으로 복구 되었다고 합니다. 최대치에 비해서는 50센티 가까이 바로 섰지만 여전히 약 5미터 정도를 기울어진 셈입니다.
이 탑이 기울어짐은 역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갈릴레오가 사탑의 경사를 이용해서 낙하운동의 법칙을 실험하고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탑이 드물기에 피사의 사탑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건축양식이나 미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는 탑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을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측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기울어졌다는 사실이 피사의 사탑을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사탑이 기울어짐으로써 로마의 원형극장이나 중국의 만리장성 또 영국의 스톤헨지 등과 더불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지명되게 되었습니다.
탑의 기울어짐이 심해지면 언젠가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라면 누구도 피사의 사탑이 완전히 수직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본래 1173년에 공사를 시작하며 고작 3미터를 올렸을 때에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기울어짐을 고려하며 탑을 쌓다보니 무려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1372년에야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탑은 매년 1mm정도씩 기울어져왔기에 그대로라면 2040년에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2001년에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5미터 가량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건축가들은 수직이라는 기준에서 단 1센티도 벗어난 기울어진 탑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수직이라는 기준에 맞추어서 세워진 지구상의 수십만 개의 탑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기준에서 벗어난 피사의 사탑만큼은 세계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사의 사탑을 수직으로 세운다면 탑으로서는 바르게 된 것이지만, 전 세계가 사랑하는 보물로써의 가치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피사의 사탑은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수직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있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오늘 본문도 앞서 보았던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남 유다는 BC.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직전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

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망한 자들에 대한 구제였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빚 대신에 노비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족들 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6년 동안만 데리고 있다가 7년째에는 자유민으로 해방시키라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왕과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이 율법을 지키기로 다시금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 유다가 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왕의 통치 말년이었기에 지켜지지 않던 율법은 이것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율법은 다 못 지켜도 이것만은 지키자는 협의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멸망을 예언해왔습니다. 그간 예레미야는 무시당했고 반국가사범으로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당하고 보니 더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온 바벨론에게 거의 모든 국토가 점령당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남쪽의 두 개 성만을 남겨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가 되니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척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동족 중에서 노비를 해방시키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율법 중에서 굳이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한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망하게 되면 국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정복국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BC.605년과 BC.597년에 두 차례에 걸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들이 겨우 떠올린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고 동족을 노비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국의 노예가 되는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동족들을 노비에서 해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동족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뒤로는 애굽에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북방으로부터 남하하는 바벨론을 막기 위한 저지선으로 유다를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가 뚫리면 애굽도 바벨론의 직접적인 침공의 대상이 될 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애굽 군대와 싸우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포위망이 다소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소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자 놓아주었던 노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들을 다시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악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들이 복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전멸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가 망하는 것은 노비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망하는 것은 이미 확정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을 주시며 멸망을 확정하는 것은, 이들이 복지를 잃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동족 노비를 풀어주었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쇠심줄 같은 질긴 죄인으로써의 기질이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의 복지를 살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족을 노비로 삼고 그들을 풀어주었다가도 다시 잡아들이게 하는 기질은 이전에도 있었고 결국 그 기질 때문에 복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하나님의 노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노비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노비'라는 말은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주인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주인과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비는 자기의 생각이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민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비로 부름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선민은 이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비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노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였습니다. 종의 형체를 띠셨으므로 인간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최초의 분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마치 건축자의 기준을 지킨 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탑을 세우는 건축자가 수직선을 기준으로 탑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수직선에서 1센티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탑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매사에 수직선과 같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으니 그 기준이 충족될 때에 기쁨을 느낍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그의 말과 행동이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사이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내 기준에 맞을 때에만 기쁩니다. 반대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납니다. 불평 슬픔 걱정 염려 두려움 등의 감정들은 내가 가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풀어주었던 동족 노비들을 다시 잡아들였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노

비가 있어야만 생활이 편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노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마저도 내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만 노비만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즉 풀어주었던 노비를 다시 잡아들였다는 것은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 상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는 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반드시 복지를 잃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아야만 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제시하는 요구를 충족시켜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쩔쩔매는 을의 모습에서 갑은 쾌감을 느낍니다. 기준에 맞추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을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노비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이 변태적인 주인 행세가 갑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노비를 풀어주었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기준을 갖는 것은 사회적으로 갑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형'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불만 염려 걱정 분노 두려움 시기 질투 등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가진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는 어느 정도 벌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걱정이 생깁니다. 여자들이 화장대 앞에 앉을 때에도 기준은 존재합니다. 내 얼굴이 마음에 들 때까지 화장을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대할 때에도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부모라면 서울대학이 수직선으로의 기준입니다. 연대나 고대라면 조금 기울어진 것이라서 봐줄 수 있습니다. 서울 안에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한데, 서울 밖으로 나가버리면 자녀라는 탑이 쓰러지고 망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광고에도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틈새 없이 밀착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비가 되는 대신에 하나님처럼 된 사람은 스스로 기준을 갖게 됩니다. 광고는 이 기준을 자극하고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특징을 조장시켜서 이득을 얻는 것이 광고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은 하나 같이 피부가 백옥 같습니다. 이러한 광고 속 모델의 피부는 광고를 보는 여성들에게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상태에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피부를 보면 한참 부족해보입니다. 피사의 사탑처럼 기준에서 벗어난 모습

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울어짐을 바로잡아 세우기 위해 화장품을 사게 됩니다. 또한 샴푸 광고를 보면 비정상적으로 모델들의 머리카락이 출렁거리고 윤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를 보다보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 출렁거리고 윤기나지 않는 내 머릿결을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동차든 핸드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적용된 기술을 보는 동안 어느 틈엔가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쓰기에 멀쩡한 제품이라도 완전히 낙후된 것으로 여겨지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기준에서 벗어난 나의 삶을 되돌리기 위해 새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광고란 지금 나의 상태를 끊임없이 부족한 상태로 만들고 기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 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갖게 된 기준에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졌기에 사랑받는 것처럼 이 기울어짐에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과 축복과 평강이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전혀 알려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있습니다만 그곳에는 더 대단한 관광지가 많습니다. 두오모 광장과 대성당도 있고 납골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모든 관광지가 피사의 사탑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을 보러 간 김에 둘러보게 되어서 관광지가 된 것입니다. 기울어진 5미터가 토스카나 지방의 두오모를 관광지로 만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건축가의 머릿속에 있는 수직선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5미터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 되셔서 삶을 이끌어 가실 때의 모습은 불가사의(不可思議)합니다.
‘불가사의하다’라는 말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 오묘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조금씩은 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마주하는 상황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온전히 평안하거나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조금씩 기준을 벗어나는 한 복지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기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기울어짐을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는 안 되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모두 기준에 얽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볼 때에 내 기준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자녀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애초에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자녀의 모습이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두었다면 피사의 사탑처럼 사랑받을 존재가 되었을 자녀를, 나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서 수많은 평범한 탑 중에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중학교 친구의 부모님이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부모님은 대한민국에 대학이 서울대학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의 기준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피사의 사탑처럼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부모 입에서는 '네가 이놈아!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학을 들어가느냐 차라리 재수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가사의를 받아들일 줄을 모릅니다.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배우자조차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불가사의로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7대 불가사의인 피사의 사탑처럼 오묘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불만족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보면 이해가 안 되던 배우자의 모습도 그 자체로 오묘합니다.

남편에 대해 '어쩌면 저렇게 돈을 못 벌어올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기준을 정했기에 생겨난 불만일 뿐입니다. 배우자의 모습을 불만족스럽게 여기지 말고 불가사의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벌기 싫어서 안 벌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 5미터 벗어난 모습이 하나님이 피사의 사탑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바로 세우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못 했습니다. 내 기준이 승진이었다면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본다면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지 불평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준에서 벗어난 5미터를 통해서 나를 피사의 사탑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피사의 사탑은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탑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기울어져있기 때문입니다.

선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피사의 사탑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불가사의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선민의 재정적 삶이 5미터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더 벗어나면 넘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5미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느라 죽을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이렇게 5미터를 기울어지고도 웃고 살아가고 행복해한다면 불가사의한 피사의 사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의 사명입니다.

아들과 딸이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한다는데 웃고 삽니다.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여길 만도

한데 쓰러지지 않고 웃고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은 이 불가사의한 삶을 피사의 사탑처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광고든 대화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기준이 제시되고 세상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기준 갖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노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진이 안 되는 것도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르는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승진이 되어야 좋다는 세상의 기준에서 5미터 벗어난 상황에서 복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르게 되는 일은 없기에 먼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나와 세상의 기준에서 해방 될 수 있습니다. 해방되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기준에서 벗어난 5미터로 보이는 삶이 축복이고 은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관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불평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세상의 기준에 대해 죽고,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오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내 마음은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새해에는 하나님을 많이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재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벌이 되면 될수록 나와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나 스스로 기준을 버리려고 해서 한 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끊임없이 대하게 되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기준이 생겨납니다. 사방에서 기준이 제시되고 세상의 기준이 적용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가 될 때에만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가족이 네 명이라면 4대 불가사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일지라도 내 기준을 갖고 생각해서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기준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보면 아픈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삶을 살면서 복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됨을 알게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부

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나를 피사의 사탑처럼 오묘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피사의 사탑은 항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기울어진 것은 모자라고 형편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짐으로 사랑받듯이 우리 삶은 행복에서 1등, 만족에서 1등, 감사에서 1등, 기쁨에서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며 살아가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사건 하나로 2019년을 행복으로 살아가기에 거뜬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하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부자 됨으로써 세상을 향한 기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기준을 갖고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움직이는 피사의 사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